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3~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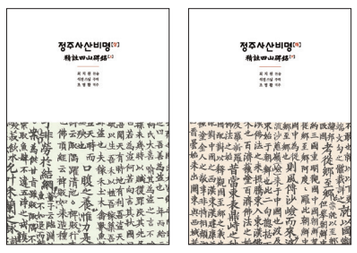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심리학	보만	불광출판사
2	신심명 증도가	원순스님 옮김	법공양
3	참선수행자를 죽비로 후려치다	원택	장경각
4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현	조계종출판사
5	사유하는 불교 성지 순례	비구 허정	어의운하
6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7	우리말로 읽는 부처님 말씀 능엄경	원조 각성	비움과소통
8	정목스님의 아침편지 365	정목	김영사
9	고광 스님의 불교 도장 깨기	고광	불광출판사
10	마음의 향기를 품은 법구경	법구	나래북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업이란 무엇인가	히라오카 사토시/법장	운주사
2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심리학	보만	불광출판사
3	요가디피카	아혱가/현천 역	선요가
4	치유하는 유식 읽기	서광스님 강의	공간
5	수행 초탈인가 치유인가	박찬욱 기획/한자경 편집	운주사
6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지음	아시아문화커뮤니티
7	프리스틴 마인드	올갠 초왕 린포체/수연	운주사
8	탁깨달음의 대화	법륜	정토출판
9	붓다의 가르침	월폴라 라훌라/이형두	맑은소리맑은나라
10	법구경	식카와띠 위뽈라냐니	담마디빠

‘사산비명’ 천년의 언어를 오늘에 옮기다



정주사산비명 상·하

최치원 찬술 / 석전 스님 주해 / 조병활 역주 어의운하 / 각 권 2만7000원

대구·전고로 해독 어려운 명문
석전 스님의 한자 주석서 번역
방대한 역주·해설로 이해 도와
“고대 불교·금석문 연구에 도움”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명문(名文)은 시간이 흘러도 스스로의 빛을 잃지 않는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알아보는 이가 있을 때, 비로소 생명을 얻고 오늘의 언어로 다시 말을 건넨다.

신라의 명문장가 최치원(857~?)이 왕의 명을 받아 지은 ‘사산비명(四山碑銘)’이 대표적인 예다. 고대 불교사·사상사·한문학사·금석학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지만 옛 문헌에 밝은 이라도 쉽사리 다가가기 어려울 만큼 난해하다. 비문(碑文) 한 편에 인용된 문헌이 40권이 넘을 정도인 데다 대구(對句)와 전고(典故)가 많이 사용되고 운율과 수사가 어우러진 변려문체(騈儷文體)로 쓰였기 때문이다.

이 난문을 풀기 위해 근세의 대강백 석전 영호(1870~1948) 스님이 16세기 이후의 방대한 주석서들을 정리·교감해 한문 주석서 〈정주사산비명〉을 저술했다. 이 귀중한 자료는 석전 스님의 전강 제자인 운기 성원(1898~1982) 스님을 거쳐, 운기 스님의 전강 제자인 혜남 스님(전 통도사 율주)에게 전해졌다. 이후 통도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던 〈정주사산비명〉을 이번에 조병활 불전연구원장이 우리말로 역주해 두 권의 책으로 펴냈다.

조 원장은 석전 스님의 〈정주사산비명〉에 실린 글 중 시와 주련 등은 제외하고 △지리산 쌍계사 진감 선사 대공령 탑비명 △월산 대숭복사 비명 △숭암산 성주사 대랑혜 화상 백월보광 탑비명 △희양산 봉암사 지증 대사 적조 탑비명 등 네 편만 번역했다.

그럼에도 책은 850페이지에 이른다. 엄청난 분량의 주석 때문이다. 상권에 소개된 ‘진감 선사 대공령 탑비명’의 원문과 역주문은 23페이지 분량이지만, 주석을 단 역주문은 80페이지에 달할 정도다. 원문의 협주·두주·각주 등은 ‘각주’로, 역주자의 주석은 ‘미주’로 처리했다. 또 각주에서는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역주자의 보충 설명’을 덧붙였다.



최치원의 ‘사산비명’ 중 하나인 ‘지증 비명’이 새겨진 ‘희양산 봉암사 지증 대사 적조 탑비’. 사진 제공=어의운하

특히 비명에 인용된 문장은 불교·도가·유가·역사·제자백가·기타류 등의 문헌 출처를 밝히고, 일일이 원문과 대조했다. 일례로 ‘춤추는 봉황[舞鳳]’과 ‘노래하는 난새[歌鸞]’란 구절에 대해 ‘역주자의 보충 해설’에서 인용서의 제목을 〈위지〉가 아닌 〈위서〉로 바로잡고, 해당 책에 같은 구절이 없음을 확인하고, 비슷한 내용이 담긴 글 육기의 ‘위 나라 무제를 애도하는 글’을 제시한 후, 정확한 단어의 출처를 밝히는 식이다.

또 비명과 주석문의 모든 한문 문장에 표점(標點)을 찍고, 단어를 우리말로 옮길 때는 가급적 쉬운 용어를 택해 가독성을 높였다.

조 원장은 “고전을 ‘수용’해 현대적으로 ‘변용’하고 역자의 언어적인 자립도를 제고하고자 번역에 도전했다”며 “〈정주사산비명〉은 통일신라 말 불교적·정치적·국제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한국 고대사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조 원장은 중국 북경대와 중앙민족대 티베트학연구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성철사상연구원장, 인제대 인제한국학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저서 〈조론소〉, 〈조론신소〉 등 20여 편의 논문과 연구서를 발표했다.

업과 윤회, 이성이 낳은 ‘합리적 신화’



업이란 무엇인가

히라오카 사토시 지음
법장 스님 옮김
운주사 / 1만8000원

‘불교학’ 관점서 업·윤회 규명
고대 인도부터 현대 사회까지
‘업론’의 형성·발전 과정 추적

업(業)과 윤회(輪廻) 사상은 불교계의 오랜 논쟁거리다. 부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라는 주장과 가르침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맞서 왔고, 최근에는 이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 불교학자 히라오카 사토시 교수의 〈업이란 무엇인가〉는 ‘불교학’의 관점에서 업과 윤회를 설명한 책이다. ‘윤회의 주체는 무엇인가’를 과학적으로 논증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대 인도에서는 무엇이 윤회한다고 생각했는가’를 역사적으로 규명하고, 그 전승과 전개를 살피려는 목적에서다. 따라서 ‘무엇이 윤회하는가’, ‘윤회의 주체를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가’ 등은 이 책의 관심 영역이 아니다.

책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대 인도에서 탄생한 업 사상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해 왔는지를 추적한다.

1장에서는 기원전 12세기경 아리아인이 인도에 침입해 바라문교를 토대로 종교를 세운 이후 업 사상이 어떻게 생겨나고 전개됐는지를 살펴본다. 2장은 불교의 업 사상을 총론으로 설명하고, 3장부터 5장까지는 각론으로 초기불교와 대승불교의 업 개념과 이해를 다룬다. 6장에서는 업과 윤회 사상이 현대 사회 문제와 인간 존재의 의미에 어떤 통찰을 줄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저자는 “불교의 업론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보편적으로 다 설명하려는 객관적 법칙이 아니기에 모순과 어긋남이 생겨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사바세계를 조금이나마 지성적이고 이성적으로 이해하려 할 때, 불교가 오랜 세월에 걸쳐 구축해 온 업 사상이 유효하게 기능하게 된다”며 “따라서 업보윤회사상은 지성·이성이 낳은 합리적 신화”라고 정의한다.



11월 24일 부산에서 열린 출간 기념 사인회에서 법장 스님(가운데)이 혜성 스님(오른쪽), 삼보회 회장 자재천 보살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책을 옮긴 법장 스님(동국대 교수)은 11월 24일 부산 아랑주 4층에서 열린 출간 기념 사인회에서 “업의 이해가 불교 수행의 핵심임에도 대중들에게 잘못 알려진 내용이 많다”며 “불교는 무아를 전제로 12처 18계의 구조 속에서 업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업에 끌려 살지만, 수행을 통해 법(法)이 이끄는 삶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수행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 여수령 기자

붓다와 공자가 전하는 ‘다스림의 기술’



붓다와 공자가 마주한 인생 독법

임종욱 지음
불광출판사
1만9000원

불교와 유교의 핵심 가르침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답을 찾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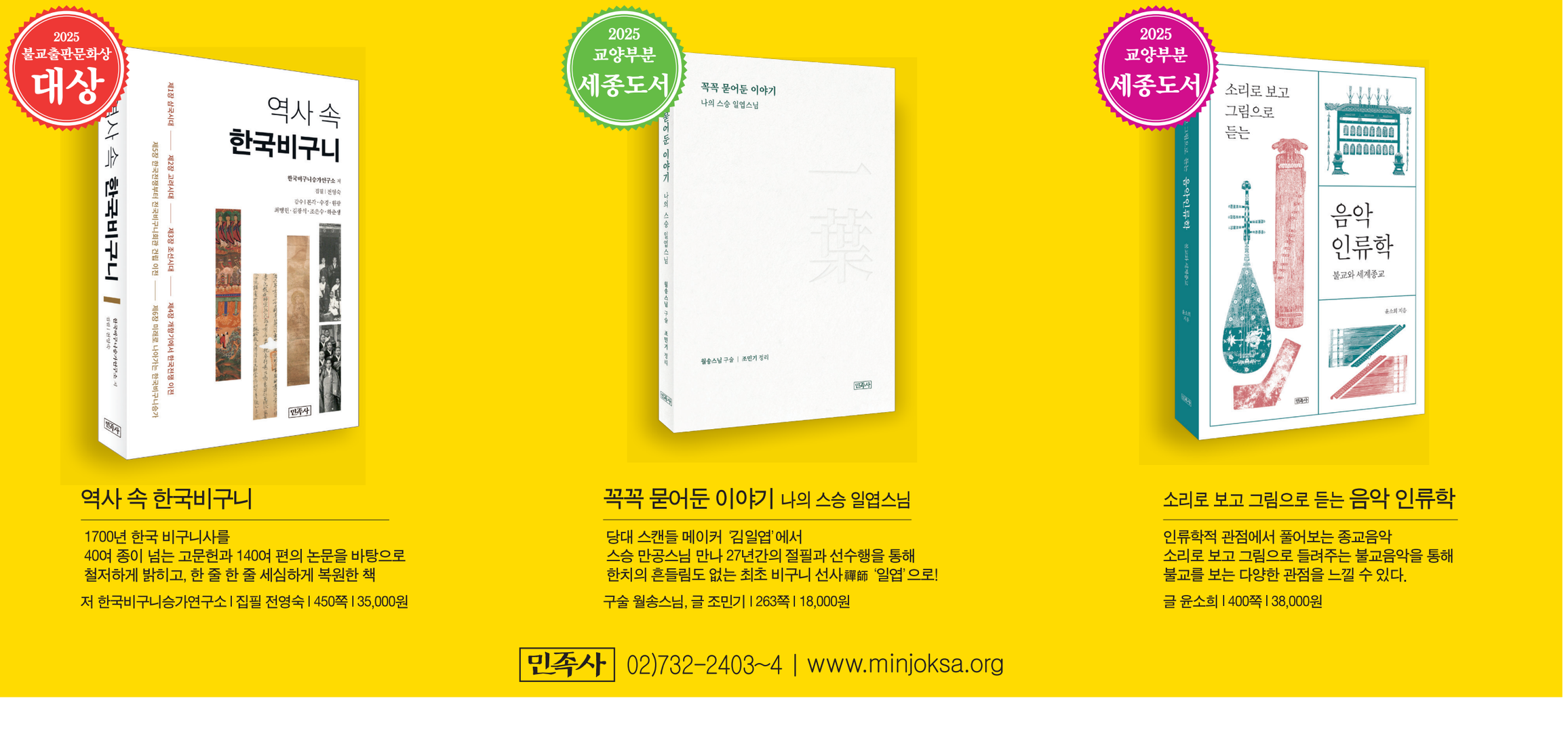
괴로움을 소멸하고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 붓다, 어짊[仁]을 최고의 덕성으로 삼아 나와 남을 이롭게 하라고 가르친 공자. 저자는 삶의 크고 작은 시련을 만날 때 두 성현의 말씀에서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책은 참회·업·중도·방편과 같은 불교의 핵심 키워드를 유교가 강조하는 자성·실천·중용·권도와 병치해 성찰의 사유를 보여 준다. 종교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 시도는 특정 사상에 기대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곧바로 닿는다.

설령 전차와 보병 부대에 둘러싸여 있다 해도 자신을 둘러싼다 한들 마음이 흔들리면 허망할 뿐이라는 〈별역잡아함경〉과 거친 밥과 맹물 속에서도 의로움은 행복이 될 수 있다는 〈논어〉의 한 구절은 시대를 넘어 우리를 일깨운다.

또 붓다가 열반에 들며 남긴 ‘자등명(자등명) 법등명’과 공자가 제자들에게 강조한 ‘발분(發憤)’의 가르침을 통해 “무엇을 언제 누구에게 배우든, 간절하고 절박한 자세가 뒷받침될 때 종착점에 닿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대학에서 한문학을 가르치며 연구에 전념하다 2006년 소설가로 등단해 여러 작품을 펴낸 저자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을 찾고 싶은 이들에게 성현의 지혜를 생동감 있게 전한다. 여수령 기자



역사 속 한국비구니

1700년 한국 비구니사를
40여 종이 넘는 고문헌과 140여 편의 논문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밝히고, 한 줄 한 줄 세심하게 복원한 책

저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 | 집필 전영숙 | 450쪽 | 35,000원

꼭꼭 묻어둔 이야기 나의 스승 일엽스님

당대 스캔들 메이커 ‘김일엽’에서
스승 만공스님 만나 27년간의 절필과 선수행을 통해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최초 비구니 선사禪師 ‘일엽’으로!

구술 월송스님, 글 조민기 | 263쪽 | 18,000원

소리로 보고 그림으로 듣는 음악 인류학

인류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종교음악
소리로 보고 그림으로 들려주는 불교음악을 통해
불교를 보는 다양한 관점을 느낄 수 있다.

글 윤소희 | 400쪽 | 38,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